

스페인어 어형성 규칙과 2015 스페인어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접미사 ‘-nte’*

곽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22), 스페인어 어형성 규칙과 2015 스페인어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접미사 ‘-nte’,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3(2), 1-38.

초록 2015 스페인어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어휘표에는 파생형태론과 관련된 하나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대표로 제시하며, 그 동사의 활용형과 분사 및 그 파생형은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접미사 ‘-nte’로 이루어진 *cantante*, *estudiante*, *importante*, *interesante*, *valiente*와 같은 다섯 단어는 기본어휘표에 수록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동일 기본어휘표에 해당동사들(*cantar*, *estudiar*, *importar*, *interesar*, *valer*)이 수록되어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건은 기존 어휘표에 수록된 동사들을 활용하는 경우(‘-ble’, ‘-dad’, ‘-dor/a’, ‘-tivo/va’와 같은 접미사를 사용하여) 다른 파생의 유형으로 다량의 어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nte’만으로 76개 이상의 단어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다.

접미사 ‘-nte’는 통시적 관점에서 라틴어 기원이라는 점은 공시적 관점에서 이 접미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초급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접미사에 대해 파생형태론에 입각한 명시적 교수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휘 파생과 관련된 내용의 수정이 기본어휘표에서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nte’와 관련된 파생형태론 교육이 초급수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base léxica)에 입각한 공시적 접근을 제안하며, 이러한 접근은 접미사 ‘-nte’의 수용적 어휘지식 고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제안한다.

핵심어 접미사 ‘-nte’, 공시적 접근, 파생형태론, 기본어휘표, 2015 스페인어 개정 교육과정, 초급 수준의 학습자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는 말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앞으로 ELE로 표기) 교수·학습방향 설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럽언어공동참조기준(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s: 앞으로 MCER로 표기)(2002)과 Instituto Cervantes(2006)의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앞으로 PCIC로 표기)는 파생형태론과 어휘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국내의 ‘2015 스페인어 개정 교육과정(앞으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으로 표기)’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파생과 관련된 조항을 통해 어휘수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 문법 기능어 중에서 관사, 지시사, 인칭대명사와 그 파생형은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 2)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대표로 제시하며, 그 동사의 활용형과 분사 및 그 파생형은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두 조항은 초급 수준의 ELE 학습자인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파생어의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재에서는 어형성 규칙과 관련된 파생형태론 관련 학습내용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서 제시하는 위 두 조항 중 두 번째 내용인 동사의 파생형을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 교육과정 기본어휘표에 수록된 접미사 ‘-nte’를 통한 파생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학습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파생접미사 ‘-nte’의 일반적 특성

1. 동사의 어간모음과 파생접미사 ‘-nte’의 관계

Real Academia Española(앞으로 RAE로 표기)(2014)의 웹사이트는 접미사 ‘-nte’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nte

Del lat. -ns, -ntis, suf. de los part. de pres. act.

1. suf. Forma adjetivos deverbales, llamados tradicionalmente participios activos. Toma la forma **-ante** cuando el verbo base es de la primera conjugación, **-ente** o **-iente**, si es de la segunda o tercera. Significa ‘que ejecuta la acción expresada por la base’. *Agobiante, veraneante, absorbente, dirigente, dependiente, crujiente*. Muchos de estos adjetivos suelen sustantivarse, y algunos se han lexicalizado como sustantivos y han generado, a veces, una forma femenina en **-nta**. *Dirigente, dependiente, dependienta*.

RAE(2014)는 위의 소개에서 보듯이 접미사 ‘-nte’는 라틴어 능동현재분사형에 그 기원을 두며, 현대 스페인어에서 형용사와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사파생형용사의 접미사로 소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라틴어의 능동현재분사형 접미사, 즉 동사의 굴절패러다임에 속하는 요소였지만, 오늘날에는 동사의 굴절형태소로 기능하지 않고 동사파생형용사를 만드는 파생형태소로 기능한다. 접미사 ‘-nte’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생형용사는 다수의 경우에서 명사화(sustantivación)가 이루어지며, 명사로의 어휘화(lexicalización)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위 RAE(2014)가 제시하는 바처럼 여성형을 드러내는 명사굴절요소가 출현하는 *dependient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RAE(2014)가 2변화 동사 *depende*의 파생형용사인 *dependiente*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접미사로 ‘-iente’를 제시하면서 여성형 명사 *dependienta*를 만드는 접미사는 ‘-ienta’가 아니라 ‘-nta’라고 특별히 적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술은 RAE가 *dependienta*를 파생형용사의 명사화 용법이 아니라 명사로의 어휘화로 명시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RAE(2014)는 ‘-nte’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1변화 동사, 2변화 동사, 3변화 동사의 파생형용사를 만드는 과정에 출현하는 각 접미사 유형과 여성형으로 출현하는 ‘-nta’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ante Del lat. -ans, -antis. V. -nte	-ente Del lat. -ens, -entis. V. -nte.	-iente Del lat. -ens, -entis. V. -nte.	-nta V. -nte.
--	---	--	------------------

다음 예문을 보자.

- (1) presidenta, gobernanta, regenta, asistenta, sirvienta, vigilanta
- (2) a. una enfermera {asistente de consultorio / *asistenta de consultorio}
- b. una asistenta de hogar
- c. un asistente de hogar

Cano Cambbrero(2013, 243)

Cano Cambbrero(2013, 243)이 제시하는 (1)의 명사들은, RAE(2014)의 기준에서, ‘-nte’형과 달리 형용사로 기능할 수 없는 어휘화된 여성명사들이다. Cano Cambbrero는 (1)의 단어들은 명사로만 기능하며 형용사로 기능할 수 없다는 증거로 (2a)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스페인어에서 동사파생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ienta’가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드러내므로, ‘-nta’가 여성형 명사의 굴절형태소라는 것을 RAE(2014)가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화된 단어가 아니라 동사에서 비롯된 파생형용사의 명사적 용법 또는 동사파생형용사 그 자체로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등장하는 파생접미사는 ‘-nte’인 것이다.

RAE(2014)는 어기동사(verbo base)의 유형에 따라 파생접미사 ‘-nte’는 형태는 1변화 동사의 경우 ‘-ante’, 2변화 동사나 3변화 동사의 경우는 ‘-ente’ 또는 ‘-iente’의 형태로 각각 구현된다고 기술하면서 그 한 예로 *absorbente*를 제시하고 있다. Varela(2005, 28)는 *absorbente*에 대해 (3a)와 같은 분석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3b)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3) a. absorber > absorbe-nte
- b. absorber > absorb-ente

앞에서 살펴본 RAE(2014)의 기술내용은 외견상 (3a)나 (3b)의 분석 방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기동사가 *absorber*이므로 (3a)는 어기동사에서 ‘-r’를 삭제하고 ‘-nte’가 부착된 형상을 보여주며 (3b)는 어기동사에서 ‘-er’를 삭제하고 ‘-ente’가 부착된 형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3a)와 같

은 분석은 어근 ‘absorb-’와 어간모음 ‘-e’가 합쳐진 어간 ‘absorbe-’에 접미사 ‘-nte’가 부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3b)는 어근 ‘absorb-’에 ‘-ente’가 접미사로 부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Varela(2005, 50)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Este sufijo, que hemos representado como *-nte* para simplificar, se asienta sobre la vocal temática del verbo, de modo que tenemos *-ante*, con verbos de la 1^a conjugación (*ignor-a-nte*) y *-ente* / *-iente* con los de la 2^a o 3^a (*insist-e-nte*, *conven-ie-nte*, *convalec-ie-nte*).

즉 *absorbente*에서 접미사 ‘-nte’에 선행하는 ‘-e’는 동사 *absorber*의 2변화형의 특성에 해당하는 어간모음이므로 동사파생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RAE(2014)의 기술은 마치 ‘-ante’, ‘-ente’, ‘-iente’가 각각 자신과 파생과정을 함께하는 어근의 특성에 맞추어 어근에 부착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접미사 ‘-nte’가 동사어기의 어간모음의 특성을 미리 판단하여 접미사에 어간모음을 미리 구현하는 ‘-ante’, ‘-ente’, ‘-iente’와 같은 형태로 동사의 어근에 부착되는 방식인 [absorb+[e+nte]]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 Varela(2005)의 의견에 따라 접미사 ‘-nte’는 동사의 어간에 부착되는 방식인 [[absorb+e]+nte]](cf. Alcoba(1999, 4918), Pena(1999, 4361))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1변화 동사가 아닌 2변화 동사나 3변화 동사를 어기로 하는 ‘-nte’형 동사파생형용사에서 예외가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해 Real Academia Española &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앞으로 RAE-ASALE로 표기)(2009)는 단순과거의 어간에 부착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Los adjetivos derivados en *-nte* o *-iente* se forman en el español actual, al igual que el gerundio, sobre los temas verbales de pretérito. Se dice, por tanto, *durmiente* (no **dormiente*), *biriente* (no **beriente*, cf. *berido*), *siguiente* (no **seguiente*), *sirviente* (no **serviente*). Existen, sin embargo, numerosas excepciones.

Entre ellas está el adjetivo *proveniente*, de *provenir*, derivado de un participio de presente latino, que contrasta con *interveniente*, formado sobre el gerundio de *intervenir*. Se registra también la variante *proviniente*, que no se recomienda.

RAE-ASALE(2009, 7.11e)

이러한 예외와 더불어 심지어 아래와 같이 스페인 정부가 발간하는 관보에서는 *absorbente*와 *absorbiente*의 혼용까지도 발견된다. 이는 RAE(2014)가 파생접미사 ‘-nte’는 어기동사가 2변화 동사나 3변화 동사인 경우 ‘-ente’ 또는 ‘-iente’의 형태로 각각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게 사용되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Se comunica que la Junta general de socios y accionistas de ambas compañías, celebradas con carácter universal el 14 de abril de 2001 han aprobado, por unanimidad, su fusión, absorbiendo “Uvescaya, Sociedad Limitada” (unipersonal) a “Centro Lagún, Sociedad Anónima” (unipersonal), adquiriendo la absorbiente, a título de sucesión universal y en bloque, todo el patrimonio de la absorbida, que quedará extinguida y disuelta sin liquidación, sin ampliación de capital social en la absorbente por tratarse de una fusión por absorción de sociedades íntegramente participadas, [...]²

동사 *absorber*는 과거시제에서 규칙변화형을 갖지만 위와 같이 *absorbente*와 더불어 *absorbiente*가 혼용되는 이유로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스페인어 2변화 동사에 속하는 동사 *absorber*의 현재분사형이 *absorbiendo*인 점은 외견상 ‘-iendo’의 현재분사형을 갖는 어기동사가 ‘-iente’의 동사파생형용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점(ex: *poniendo-poniente*, *saliendo-saliente*, etc.)에서 유추적 적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³ 두 번째로는 *absorber*의 단순과거형이 *absorbieron*이므로

2) 밑줄은 본 연구가 부여한 것임.

자료출처: «BORME» núm. 79, páginas 9903 a 9903 (1 pág.) <https://www.boe.es/diario_borme/txt.php?id=BORME-C-2001-79088>

3) 가령 RAE(2014)가 아래에 제시하는 동사 *poner*의 파생형용사 *ponente*와 *poniente*는 어원의 설명은 같지만 어휘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Pena(1999, 4361)은 ‘*poner* > *ponente*/ *ponente*’ vs ‘*proponer* > *proponente*’에서 보듯이 어간모음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이 과거시제형을 [absorb(어근)+ieron(굴절형태소)]와 같이 판단하여 [absorb(어근)+iente(파생형태소)]로 분석화하여 굴절파생과 어휘파생을 비이질적 파생과정으로 유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absorb(어근)+ente(파생형태소)]로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파생접미사 ‘-nte’를 갖는 동사 파생형용사에 대해 스페인어의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접미사 ‘-nte’에 대한 일부 형태론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MCER(2002)는 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휘의 형태론적 특성은 문법 역량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5.2.1.2. La competencia gramatical’에서 기술한다. 주지하다시피 MCER(2002) 작업에는 Instituto Cervantes도 참여하였는데 MCER(2002)가 보여주는 형태론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이후 Instituto Cervantes(2006)의 PCIC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No se ha incluido tampoco *el tratamiento de la morfología derivativa o composicional*, puesto que sería prácticamente imposible determinar qué prefijos, sufijos o procedimientos de formación de palabras habrían de incluirse en cada nivel. Se trata más de una cuestión léxica y metodológica que puramente gramatical y requiere, por ello, un tratamiento de carácter pedagógico que

보았다. 결국 원어민의 직관은 어간모음에 있어서 유추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ponente

Del lat. ponens, -entis, part. pres. act. de ponēre ‘poner’, ‘proponer’.

1. adj. Dicho de una persona: Autora de una ponencia.
2. adj. Dicho de un magistrado, de un funcionario o de un miembro de un cuerpo colegiado o asamblea: Designado para hacer relación de un asunto y proponer la resolución. U. t. c. s.

poniente

Del lat. ponens, -entis, part. pres. act. de ponēre ‘poner’, ‘deponer, cesar’.

1. adj. Dicho de un astro: Que se oculta en el horizonte.
2. m. oeste (|| punto cardinal).
3. m. Viento del oeste.

trasciende el ámbito de la definición de contenidos. Lo que no es óbice para que en el inventario, al hilo del desarrollo de determinadas categorías, exista alguna mención a la formación de un elemento en particular (por ejemplo, los adverbios en *-mente*).

Instituto Cervantes(2016, Gramática. Introducción)

Instituto Cervantes(2006)는 위의 내용에서 파생형태론에 입각한 교수·학습이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ER(2002, 111)는 형태론에 대한 정의적 설명과 더불어 파생과 합성의 유형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다.

La morfología se ocupa de la organización interna de las palabras. Las palabras se pueden analizar como morfemas, clasificados de la siguiente forma:

- Raíces.
- Afijos (prefijos, sufijos, infijos), que comprenden:
 - Afijos de derivación (por ejemplo: *re-*, *-mente*, *-dad*).
 - Afijos de flexión (por ejemplo: *-aba*, *-ase*).

Las palabras se pueden clasificar en:

- Palabras simples (sólo la raíz; por ejemplo: *seis*, *árbol*, romper).
- Palabras complejas (raíz + afijos; por ejemplo: *irrompible*, *seises*).
- Palabras compuestas y lexías complejas (que contienen más de una palabra; por ejemplo: *rompebielos*, *cascanueces*, *vestido de noche*, *cuello de botella*).

MCER(2002, 11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MCER(2002)가 동사원형인 *romper*를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palabra simple’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MCER(2002)는 동사원형이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기 때문에 동사원형의 접미사 ‘-r’는 마치 굴절접사도 파생접사도 아닌 것처럼 기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비록 파생접사의 유형으로 접두사(prefijo), 접미사(sufijo), 접요사(infijo) 중 접미사와 접두사의 예시를 소개(ex: *re-*, *-mente*, *-dad*)하고 굴절접사도 소개(ex: *-aba*, *-ase*)하지만, 파생접미사와 파생접두사가 등장하는 현상(ex:

irrompible)과 명사에 굴절접미사가 등장하는 현상(ex: *seises*)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접사가 등장하는 단어를 모두 복합어(*palabras complejas*)로 유목화(*categorización*)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원형이 접미사를 가지지만 복합어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와 같은 제시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스페인의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앞으로 UCM로 표기)은 ‘Proyecto de Innovación Plataforma gramatical de enseñanz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앞으로 Plataforma Gramatical ELE로 표기)’⁴⁾도 다음과 같이 동사의 굴절(*flexión verbal*)에 대하여 기술한다.

〈표 1〉 El verbo

Tema verbal o lexema	Formantes o morfemas desinenciales	
raíz + vocal temática	Tiempo Aspecto Modo (TAM)	Persona Número (PN)

〈표 2〉 Formas no personales

El infinitivo	Gerundio	Participio
Presenta el proceso verbal sin señalar ni su principio ni su final. Su morfema es <i>-r</i> .	Presenta el proceso verbal en pleno desarrollo, sin implicar el final. Morfema <i>-ando, -iendo</i> .	Presenta el proceso verbal como acabado. Morfemas <i>-do, -so</i> (impreso), <i>-to</i> (escrito), <i>-cho</i> (dicho)

UCM는 <표 1>에서 동사의 인칭변화형 어간은 어근과 어간모음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표 2>에서는 동사의 무인칭 형태인 동사원형, 현재분사형, 과거분사형은 각각에 해당하는 접미사 - ‘*-r*’, ‘*-ando/ -iendo*’, ‘*-do/-so/-to/-cho*’ -를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MCER(2002: 111)가 동사원형을 단일어로 기술하면서 접미사 ‘*-r*’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며 <표 1>의 TAM(시제, 상, 법)+PN(인칭과 수)에 해당하는 굴절접사만을 소

4) 자료출처: <<https://www.ucm.es/plataformaele/morfologia-flexiva>>

개(ex: *-aba*, *-ase*)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MCER(2002: 111)는 동사의 무인칭형태를 구성하는 접미사는 제시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사의 무인칭형태의 형태론적 정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문법의 관점을 견지하는 Gómez Torrego(1998)는 현재분사형의 형태론적 정보를 설명하면서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와는 다소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4) a. El sufijo de infinitivo es *-r*: *ama-r*, *teme-r*, *parti-r*
 b. El sufijo de gerundio es *-ndo*: *ama-ndo*, *temie-ndo*, *partie-ndo*
 c. El sufijo de participio es *-do*: *ama-do*, *temi-do*, *parti-do*

Gómez Torrego(1998, 20)

일반적으로 교수·학습과정에서 규칙형 동사를 제시하는 경우 ‘-ar’로 끝나는 동사를 1변화 동사, ‘-er’로 끝나는 동사를 2변화 동사, ‘-ir’로 끝나는 동사를 3변화 동사라고 소개하는 방식을 여러 교재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규칙형 동사의 경우 현재분사형은 ‘-ando/-iendo’, 그리고 과거분사형은 ‘-ado/-ido’를 어미로 각각 소개하는 것 역시 관찰할 수 있다. <표 3>과 <표 4>는 그러한 소개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표 3>

ESTAR + GERUNDIO			
Yo	estoy		
Tú	estás		
Vos	está	-ar estudi- ar	-er comprend- er
Él / ella / usted	está		-ir escrib- ir
Nosotros /-as	estamos		
Vosotros /-as	estáis	estudi- ando	comprend- iendo
Ellos /-as / ustedes	están		escrib- iendo

Moreno *et al.* (2007, 102)

〈표 4〉

Pretérito perfecto (presente del verbo <i>haber</i> + participio)					
Yo	he	} + participio >	-AR	-ER	-IR
Tú / vos	has		COMPRAR	COMER	VIVIR
Él / ella / usted	ha		Compr-ado	Com-ido	Viv-ido
Nosotros /-as	hemos				
Vosotros /-as	habéis				
Ellos /-as / ustedes	han				

Moreno *et al.* (2007, 132)

<표 3>과 같은 방식은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이 <표 2>에서
 현재분사형을 ‘-ando/-iendo’와 같이 제시하는 방식과 같다. 그러나 UCM는 과
 거분사형⁵⁾의 설명부분에서는 <표 4>의 ‘-ado’와 같은 유형제시 방식을 취하지
 않고 Gómez Torrego(1998)의 (4c)와 같은 제시방식을 취한다. UCM이 과거분
 사형의 어미를 <표 2>와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RAE(2014)가 ‘-ado’를 형용사
 파생접미사로 기술하면서 과거분사형 굴절접미사로 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RAE(2014)가 과거분사형 굴절접미사를 ‘-ado’가 아니라
 ‘-do’로 기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는 형용사
 파생접미사까지도 모두 어간모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소개하
 고 있다.

5) 물론 UCM는 과거분사의 불규칙 형태와 규칙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Gómez
 Torrego(1998)는 규칙형만을 제시하지만 논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
 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자 한다.

6) RAE(2014)가 제시하는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ado, da

Del lat. -ātus.

1. suf. Aparece en adjetivos y sustantivos derivados de sustantivos y verbos de la primera conjugación. Forma adjetivos que expresan la presencia de lo significado por el primitivo. *Barbado, sexnado, invertebrado*.

2. suf. Forma adjetivos que expresan semejanza. *Aterciopelado, nacarado, azafranado*.

3. suf. Forma sustantivos que indican acción y efecto. *Afeitado, revelado*.

4. suf. Forma sustantivos que designan un conjunto. *Alumnado, alcantarillado*.

5. suf. Forma sustantivos que indican dignidad o cargo. *Obispado, rectorado, papado*.

- (5) a. Derivación nominal
 - ante*, -*ente* (amante, durmiente)
 - ado*, -*ada*, -*ido* (lavado, recauchutado, madrugada, retirada, sacudida, salida).
- b. Derivación adjetival
 - ado*, -*ido* (sabido, bebido)
 - ante* (lubricante, sonriente)

하지만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는, RAE(2014)와 동일하게, 굴절접미사인 현재분사형 접미사도 <표 2>에서 접미사에 어간모음이 등장하는 것으로 기술함에 따라 Gómez Torrego(1998)가 제시한 현재분사형 설명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소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Morphological Awareness*라는 개념을 소개한 Carlisle(1995)를 비롯하여 Marcos Miguel(2013), Robles García & Sánchez Gutiérrez(2016), Serrano-Dolader, Zorraquino & Ávaro(2009) 등은 스페인어의 파생형태론에 대해 제2외국어로써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여러 교수·학습자료에는 굴절형태론과 파생형태론의 정보제공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Gómez Torrego(1998)가 제시한 (4)처럼 동사의 종결 유형에 기초하지 않고 동사원형과 과거분사형을 접미사 ‘-r’와 ‘-do’를 기준으로 소개한다면, (4a,c)의 경우에는 어간 모음이 변하지 않아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분사형을 소개하는 (4b)의 경우는 어간 모음의 변화, 즉 이중모음화(diptongación)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의 (5)와 같은 방식에서 역시 *durmiente*와 *sonriente*에서 접미사 ‘-ente’가 이중모음화를 보여준다는 설명의 부담을 갖게되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 입각한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재인 이강국 외(2018)의 『Español I』은 (4b)와 같이 어근이나 어간과 어미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분사의 각 형태를 소개한다.

〈표 5〉

[규칙형]	
hablar	hablando
comer	comiendo
vivir	viviendo

이강국 외(2018, 124)

<표 5>는 현재분사 *comiendo*의 경우 형태론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com+ie+ndo]와 같이 구성되었다는 분석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은 추상적으로나마 [com+iendo]와 같이 분석하여 어근 ‘com-’에 후행하는 ‘-iendo’가 굴절형태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UCM의 Plataforma Gramatical ELE이 <표 2>에서 제시하는 방식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습 교재에서 <표 5>와 같은 유형의 정보 제공 방식, 즉 어근, 어간모음, 굴절형태소 등의 구성소를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학습자가 현재분사의 형태적 특성을 유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의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Serrano-Dolader(1999: 4685, 4707)는 동사의 굴절패러다임 중 한 형태인 동사원형에 출현하는 어간모음은 동사화 파생형태소(morfema derivativo verbalizador)이며 ‘-r’는 동사원형에 본유적으로 존재하는 굴절형태소(morfema flexivo)로 기술한다. 정의적 측면에서 동사원형은 굴절과 파생의 과정을 모두 갖는 형태라는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MCER(2002: 111)는 동사원형을 단일어로 기술하고 파생접사가 출현하는 단어는 복합어로 기술하기 때문에 MCER(2002)의 기준에서는, 그 기술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간모음이 출현하는 동사원형을 복합어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ómez Torrego(1998)의 (4)는 어간모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정보보다 굴절형태소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Gómez Torrego(2011)가 동사원형, 현재분사형, 과거분사형이 갖는 어간 모음의 존재를 이론적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배제한다기 보다는 어간모음을 동사범주에 본유적으로 속한 요소로 보고 굴절형태소 ‘-r’, ‘-ndo’, ‘-do’에 대한 분석적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Serrano-Dolader(2016, 18)가 다음과 같이 동사 어간모음의 이중적 특성을 가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 Morfema derivativo, si se considera el verbo como derivado de base previa.
- Morfema inherente a la categoría verbal, si se considera el verbo — derivado o no — en su correspondiente paradigma de flexión.

동사의 무인칭형태에서 어근 뒤에 어간 모음이 등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형성 규칙을 초급 수준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설명하는 경우, 어근과 어간모음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유도하는 것 보다는, 어근과 어간모음으로 이루어진 어간을 ‘어기’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한다면, 적어도 굴절과 파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들을 설명하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Serrano-Dolader(1999)와 Gómez Torrego(1998)의 견해를 종합하면, 동사의 무인칭형태는 동사화 파생이후 굴절 형태소의 부착으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파생과 굴절의 과정을 모두 갖는 정의적 특성이 있지만, 일례로 현재분사형의 경우 <표 5>와 같은 간단한 제시만으로도 학습자들이 파생과 정보다는 굴절형 변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굴절형태론에 속하는 현재분사형의 설명에서 만약 현재분사형이 어근에 굴절접미사로 ‘-ando/-iendo’가 부착되는 것으로 된다고 보고 파생형태론적 접근에서 다루어야 하는 동사파생형용사를 어근에 접미사 ‘-ante/-ente’가 부착되는 것으로 본다면 모두 굴절접미사와 파생접미사가 어간모음을 포함한다는 정의적 위배를 범하게 된다. 이와 달리 어기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현재분사형은 어기에 굴절접미사 ‘-do’가 부착되고 동사파생형용사는 어기에 접미사 ‘-nte’가 부착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정의적으로 위배하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는 ‘-nte’형 파생어들이 형

태론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라틴어 현재분사형과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굴절접미사와 파생접미사가 보여주는 분포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정의적으로 위배되는 형태론적 분석은 지양해야하며 오히려 어기와 함께 ‘-nte’형 파생형용사를 각각 사전의 표제어로 자주 학습자에게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파생형용사를 어기와 더불어 동일 어족에 속한 또 다른 단어로 학습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 동사의 파생형에 대한 어휘 수록 기준과 교수·학습에 대한 대안 모색

1. 파생의 방향성에 입각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어휘 수록 기준 분석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는 동일 어근을 공유하는 다음 두 단어가 수록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6) a. *perdón*
- b. *perdonar*

Serrano-Dolader(1999, 4686)는 동일한 어근을 갖는 (6a)와 (6b)의 관계에 있어서 공시적 시각(*visión sincrónica*)에서 파생의 방향성을 판단하여 동사 *perdonar*는 명사 어기(*base nominal*)인 *perdón*에서 비롯된 파생동사로 판단한다. 비록 명사 *perdón*이 동사 *perdonar*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통시적 시각(*visión diacrónica*)의 접근도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법서가 공시적 시각에 입각하여 문법 현상들을 설명하므로 어휘의 파생관계 역시 공시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어 동사 *animar*는 통시적 시각에서 볼 때 라틴어 동사형 *animare*에서 비롯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동사 *animar*의 경우 명사 *ánimo*를 어기로 하여 그로부터 파생된 동사로 판단하는 공시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Serrano-Dolader(1999, 4685-4686)의 공시적 시각에서 볼 때, 어간 모음(또는 그 영 이형태(*alomorfo cero*))은 어근(*raíz*)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ánimo* >

*animar*의 파생관계처럼 (6a,b)의 *perdón* > *perdonar*는 직접파생(*derivación inmediata*)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 등장하는 다음 (7a,b)의 형용사/동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Serrano-Dolader(1999)는 (6a,b)의 파생 방향성에 기초하여 *bajar*와 *limpiar*는 모두 형용사 파생동사로 설명한다.

- (7) a. bajo / bajar
b. limpio / limpiar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의 파생은 *posible* > *imposible*, *agradar* > *agradable*와 같이 어기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 수록되는 어휘의 제시 기준을 보면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대표로 제시하며, 그 동사의 활용형과 분사 및 그 파생형은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통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명사 *perdón*은 동사 *perdonar*의 파생형이므로 (6a, b)와 같이 두 단어를 모두 기본어휘표에 수록할 필요는 없으므로 동사 (6b)만을 수록하면 된다. 그러나 공시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는 명사의 파생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6a, b) 모두를 수록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아울러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서는 형용사의 파생에 대한 조항도 없으므로 (7)과 같이 형용사와 동사를 모두 기본어휘표에 수록하는 것은 그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서 통시적 입장을 취하여 *perdonar* > *perdón*으로 파생방향의 기준을 가지면서 *perdón*을 기본어휘표에 수록하면 잉여적인 어휘 수록이 된다, 또한 접사의 첨가를 통한 파생 방식이 아닌 어기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파생 방식도 결국 동사의 파생이므로 교수·학습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6)-(7)에 대해 Serrano-Dolader(1999)의 공시적 시각으로 교육문법차원의 파생 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통시적 시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어휘 수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2.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어휘수령 기준의 문제점

다음 예시를 보자.

- (8) a. 동사 → 명사: *cambiar* > *cambio*
- b. 동사 → 명사: *perdonar* > *perdón*
- c. 동사 → 명사: *comprar* > *compra*

Pena(1999, 4337)

Pena(1999, 4309, 4337)는 어근만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으므로 위 (8)에 제시된 동사들이 1변화 규칙동사이므로 모두 어간모음 ‘-a’가 대부분의 굴절형의 어기에 등장하는 특성에 주목하여 (8a)의 경우 어간 모음의 대치(sustitución), (8b)는 어간 모음의 삭감(sustracción)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아울러 (8c)는 어간 모음의 대치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 *comprar*와 명사 *compra*가 모두 동일하게 *compra*를 어간으로 가지는데, 이러한 명사의 파생과정을 전환(conversión)이라고 설명한다.⁷⁾ 따라서, (8a-c)의 *cambio*, *perdón*, *compra*는 모두 동사에서 비롯된 파생명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은 동사의 파생형을 기본어휘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8a-c)의 파생명사들을 기본어휘표에 수록할 필요가 없지만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이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공시적-통시적 시각 차이에서 관찰되는 파생방향의 차이, 즉 (6a,b)의 *perdón* > *perdonar*와 (8b)의 *perdonar* > *perdón*과는 별도로 이른바 대치, 삭감, 전환 등과 같은 파생의 유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동사의 파생형을 기본 어휘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8a-c)처럼 동사와 그 파생형이 동시에 수록되는 사례는 다음 (9)와 같이 세

7) 이와 달리 Santiago Lacuesta & Bustos Gisbert (1999: 4515, 4549, 4584), Varela (2005: 31-32), Feliu Arquiola(2009: 61)는 동사 어근에 접미사 ‘-a’가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보인다.

단어가 동시에 기본어휘표에 수록되는 경우에서도 관찰된다.

(9) canción / cantante / cantar

동사나 명사의 파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기본어휘표는 동사나 명사 등의 어휘를 제공하는 목적 자체만으로 충분하므로 (9)와 같이 명사 *canción*, 명사와 형용사로 기능하는 *cantante*, 동사나 명사로 기능하는 *cantar*를 기본어휘표에 수록하면 된다. 그러나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 따르면 접미사뿐만 아니라 접두사를 이용한 파생의 허용도 가능하므로 기본어휘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기본어휘로 간주되는 경우는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접두사를 이용한 파생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접미사를 통한 파생만으로도 관련 어휘수⁸⁾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10) V > V: cantar > canturrear

Felú Arquiola(2009, 63)

- (11) a. cantador, ra
b. cantaor, ra.
c. cantarín, na
d. cantable

RAE(2014)

(10)-(11)은 모두 동사 *cantar*를 어기로 하여 파생된 단어들을 볼 때, 기본어휘표에서 동사의 파생형을 모두 기본어휘로 간주한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단어 수에 따라 해당 형태, 의미와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의 확장은 불가피하

8)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휘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i) 중학교 생활 스페인어: 고등학교 보통 교과 스페인어 교육과정【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25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ii) 스페인어 I:【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50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iii) 스페인어 II: ‘스페인어I’의 내용에 준하되,【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80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게 될 것이다. Pena(1999)도 언급하듯이 (12a)의 동사 *aspirar*⁹⁾는 전치사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며 각 파생형 (12b)와 (12c)는 동사가 전치사 보어를 취하는 특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은 (9)-(11)과 같은 파생뿐만 아니라 (12b,c)의 파생과 같은 유형들도 허용하므로 이러한 파생에 대한 학습은 불가피할 것이다.

- (12) a. aspirar a un cargo
b. aspiración a un cargo
c. aspirante a un cargo

Pena(1999, 4312)

하지만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파생들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전을 참조하더라도,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는 명사 *función*과 동사 *funcionar*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Serrano-Dolader(1999)의 공식적 시각에 입각하면 동사 *funcionar*는 명사 *función*에서 파생된 것(cf.(6a-b))이므로 두 단어를 모두 수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기본어휘표에 *aspirar*가 수록되었다면 접미사 ‘-ción’을 갖는 (12b)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므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준에서는 기본어휘표에 수록될 필요가 없으며 (12c) 또한 수록될 필요없이 모두 기본어휘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이다. (12a)의 *aspirar*는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므로 (12)와 동일한 파생 유형을 보이는 동사 *cantar*를 RAE(2014)의 (13)을 통해 살펴보자.

- (13) cantar¹
Del lat. cantāre.
1. intr. Dicho de una persona: Producir con la voz sonidos melodiosos, formando palabras o sin formarlas. Cantar con buena voz.
2. intr. Dicho de algunos animales, especialmente de las aves: Producir

9) 동사 *aspirar*는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논의의 전개를 위한 예시로 제시되었다.

sonidos continuados y generalmente melodiosos. Canta un ruiseñor, un grillo, una rana.

3. intr. Dicho de ciertos artefactos: Sonar reiteradamente. Cantar los ejes de un carro, una ametralladora.

[나머지 4~19항은 지면관계상 생략]

cantar²¹⁰⁾

1. m. Copla o breve composición poética musicalizada o adaptable a alguno de los aires populares, como el fandango, la jota, etc.
2. m. canción (|| antigua composición poética).
3. m. Especie de saloma que usan los trabajadores de tierra.

(14) canción

Del lat. cantio, - nis.

1. f. Composición en verso, que se canta, o hecha a propósito para que se pueda poner en música.
2. f. Música con que se canta una canción.

[나머지 3~6항은 지면관계상 생략]

(15) cantante

De cantar1 y -nte.

1. adj. Que canta.
2. m. y f. Persona que canta por profesión.

RAE(2014)

(14)에서 명사 *canción*에 대한 어원의 설명은 라틴어에 기초한 ‘Del lat. cantio, -ōnis.’와 같이 제시되므로 라틴어의 지식이 대부분 없는 학습자들은 바로 그 하단에 있는 공시적 시각에 입각한 설명을 통해 어휘의 형태론적 정보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나 (15)의 *cantante*에 대한 설명은 ‘De cantar1 y -nte’와 같이 공시적 시각을 반영한 비교적 간결한 정보 제공방식이므로 학습자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그 형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RAE(2014)는 *cantante*와 같은 파생어에 대해 [어근+어간모음+접미사], 즉

10) 본 연구는 RAE(2014)에서 제시하는 cantar1과 cantar2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의 밖이라고 보고 다루지 않고자 한다.

[cant+a+nte]와 같은 도식화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기로 작용하는 동사의 원형과 파생형을 이끄는 접미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5)의 [cantar1 y -nte]와 같은 정보는 [동사원형+접미사]와 같은 정보, 즉 동사원형에 접미사의 부착을 요구하는 정보가 아니다. (15)의 정보는 동사어기에 접미사 ‘-nte’가 부착되어 얻어지는 파생의 결과물이 *cantante*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파생 규칙에 대한 설명 없이 파생형을 구성하는 요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은 동사의 파생형을 기본 어휘로 간주함에 따라 동사 *cantar*가 기본어휘표에 제시되어있으므로 (10), (11a-d), (14), (15)는 기본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오히려 RAE(2014)는 사전에 독립적인 단어로 이들 단어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적어도 RAE(2014)와 같은 사전도 파생형을 수록하는 것에 비추어, 교육과정의 기본어휘표 역시 파생형은 수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동사의 파생형 허용 조항은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3. 파생접미사 ‘-nte’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모색

지금까지 우리는 어근에 기초하여 파생의 유형을 기술하는 것 보다 어기에 기초한 파생의 유형을 설명하는 방식이 교수·학습과정에서 잇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Pena(1999)가 어근만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다는 언급과 궤를 같이하는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다.

El español, como las demás lenguas del mismo tipo morfológico, no utiliza las raíces desnudas, sino que las codifica categorizándolas en las llamadas ‘clases de palabras’. Ciñéndonos a las tres clases léxicas de palabras (sustantivo, adjetivo y verbo), toda raíz es susceptible de categorizarse bajo tales clases. Así, si una raíz es originariamente verbal, se categoriza primariamente como verbo y secundariamente como sustantivo y adjetivo (crear -> creación o creador y creable o creativo)

Pena(1999, 4309)

Nation(2001)이 언급한 것처럼 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에 대한 인식은 어휘력 향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cf. Carlisle(1995)) 학습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Pena(1999)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crear*는 원래 동사 어근이어서 우선 동사로 범주화가 이루어지고 ‘-ción’, ‘-dor’, ‘-ble’, ‘-tivo’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명사나 형용사로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사 → 명사의 파생관계는 *crear*의 경우 라틴어와 현대 스페인어를 비교할 경우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보아도 동일한 방향성의 파생결과를 보여준다.

(16) LATIN		SPANISH	
creāre	creātio	crear	creación

Pena(2011, 221)

그렇다면 *cantar*와 같은 동사도 과연 위 (16)의 *crear*처럼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동일한 파생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다음 (17)은 *cantar*와 파생관계를 갖는 두 가지의 명사가 출현하는 문장이다. *cantante*는 형용사와 명사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cf.(15)), (17)에서는 주어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로 기능하며, *canción*은 목적어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로 출현한다.

(17) El cantante canta una canción.

앞에서 보았던 RAE(2014)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동사 *cantar*와 명사 *canción*은 어원의 설명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cantante*의 경우는 어형성에 참여하는 요소로 현대 스페인어 동사 *cantar*를 어기처럼 제시하고 있다.

- (18) a. cantar¹ Del lat. cantāre. (cf.(13))
 b. canción Del lat. cantio, -ōnis. (cf.(14))
 c. cantante De cantar¹ y -nte. (cf.(15))

한편 RAE(1726-1739)¹¹⁾는 일찍이 *cantar*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CANTAR. v. a. Echar el aliento por la garganta, entonado en punto de música, que pueda ser imitado, o acompañado de qualquier instrumento, ahora sea con entonación uniforme, o sea con alguna variación, o con canto llano, o con canto de órgano. Latín. Canere. Cantare, que es de donde viene. [...]

RAE(1729) *Diccionario de Autoridades* – Tomo II

RAE(1726-1739)는 라틴어 *cantāre*가 *canere*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canere*와 *cantāre*의 특성에 대해 Pena(2011)는 ‘-tāre’가 파생동사의 종결어미이므로 *canere*는 어기동사로, 그리고 *cantāre*는 파생동사로 보고 그 차이를 (19)와 같이 소개하면서 (20)-(21)과 같이 현대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19) canere → cantio cantus cantor

↓

cantāre → cantātio cantāmen cantātus cantātor

(20)	LATIN		SPANISH
	canere	cantio cantus cantor	- canción canto cantor
	cantāre	cantātio cantāmen	cantar -

(21)	LATIN CONTINUATION	HISPANIC CREATIONS
	canción, canto, cantor	cantante, cantador, cantable
		Pena(2011, 221-224)

11) <<https://apps2.rae.es/DA.html>>

본 사전에 대해 RAE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ntre 1726 y 1739 publica la Real Academia Española su primer repertorio lexicográfico, el «*Diccionario de la lengua castellana, en que se explica el verdadero sentido de las voces, su naturaleza y calidad, con las pbrases o modos de hablar, los proverbios o refranes, y otras cosas convenientes al uso de la lengua*», conocido como el *Diccionario de autoridades*.

(19)에 의거하면 (18b)의 *canción*은 오늘날의 *cantar*의 어원인 *cantāre*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canere*에서 파생된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Pena(2011, 223)는 라틴어의 경우 일부 ‘-tāre’형 파생동사가 명사 파생을 허용하지만(ex: *cantātio*, *insultātio*) 대부분 파생동사는 자신으로부터 명사가 파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canere*는 어기동사이므로 자신으로부터 명사가 파생되는 것을 허용하므로 *cantio*, *cantus*, *cantor*를 관찰할 수 있으며, 어기동사 *canere*와 파생동사 *cantāre* 중 현대 스페인어로 이어져오는 것은 파생동사 *cantāre*라는 점을 Pena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1)을 볼 때, 통시적 관점에서 *canción*, *canto*, *cantor*와 *cantante*, *cantador*, *cantable*는 어근은 공유하지만 여기는 공유하지 않지만 공시적 관점에서는 *cantante*, *cantador*, *cantable*는 모두 어기를 공유한다. 오늘날 *cantāre*에서 파생된 *cantar*만이 동사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21)의 단어들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에서는 모두 *cantar*를 어기동사로 삼게 된다. 결국 라틴어 *canere*와 *cantāre*는 현대 스페인어에서 각각 *canción*, *canto*, *cantor*와 *cantante*, *cantador*, *cantable*의 파생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교수·학습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현대스페인어의 동사 *cantar*이므로 공시적 측면에서 동사 *cantar*는 어기동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라틴어의 어기동사와 파생동사의 학습까지 이르는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 16개 단어들은 ‘-nte’가 등장하는 단어들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 수록된 것들이다: RAE(2014)에서 제시하는 어원에 대한 설명(각 a)과 사용 가능한 문법 범주(각 b)만을 표시한 내용이다.

(22) ambiente

a. Del lat. ambiens, -entis ‘que rodea o cerca’.

b. adj. m

(23) bastante

a. De bastar¹²⁾ y -nte. Neutro bastante.

12) 이 동사에 대해 RAE(201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el lat. vulg. *bastāre, y este del gr. βασιτάζειν bastázein ‘llevar, sostener un peso’; cf. it. bastare y port. bastar.

b. adj. indef. / pron. indef. m. y f. / pron. indef. m. pl. / pron. indef. n. / adv. indef.

(24) caliente

a. Del lat. calens, -entis.

b. adj. / interj.

(25) cantante

a. De cantar¹³⁾ y -nte

b. adj. / m. y f.

(26) dependiente, ta¹⁴⁾

a. De depender¹⁵⁾ y -nte.

En acep. 1, u. solo la forma dependiente; para el f., u. t. dependiente en acep. 2.

1. adj. Que depende.

2. m. y f. Empleado que tiene a su cargo atender a los clientes en las tiendas.

3. m. p. us. Persona que sirve a otra o es subalterna de una autoridad.

(27) diferente

a. Del lat. diffērens, -entis.

b. adj. / adv.

(28) durante

a. De durar y -nte.

b. prep.

13) 이 동사에 대해 RAE(201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el lat. cantāre.

14) 제2장에서 '-nte'의 어휘화된 명사에 대해 살펴본 내용과 관련되므로 이 부분만 사전이 제시하는 방식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22)-(37) 중 RAE(2014)가 유일하게 여성형 명사굴정접사를 수록한 것이 (26)이다.

15) 이 동사에 대해 RAE(201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el lat. dependēre 'colgar, pender'.

- (29) estudiante
a. De estudiar y -nte.
b. adj. / m. y f. / m.
- (30) frecuente
a. Del lat. frequens, -entis.
b. adj.
- (31) importante
a. De importar y -nte.
b. adj.
- (32) inteligente
a. Del lat. intellĭgens, -entis.
b. adj.
- (33) interesante
a. 설명 없음
b. adj.
- (34) picante
a. De pīcar y -nte.
b. adj. / m.
- (35) restaurante
a. De restaurar y -nte.
b. m.
- (36) suficiente
a. Del lat. sufficiens, -entis.
b. adj.
- (37) valiente
a. De valer¹⁶⁾ y -nte; lat. valens, -entis.
b. adj.

RAE(2014)가 (22)-(37)의 단어들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⁷⁾: 첫째, (22), (24), (27), (30), (32), (36)처럼 현대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정보는 없이 라틴어 어원 정보만 표기하는 유형, 둘째 라틴어와 현대스페인어 정보를 모두 표기하는 (37)과 같은 유형, 셋째 현대스페인어만을 표기하는 (23), (25), (26), (28), (29), (31), (34), (35)과 같은 유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틴어의 어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사변화형과 관련된 라틴어 굴절접사의 정보(ex: ‘-entis’)를 제공하지만, 현대스페인어 접미사의 정보로는 모두 ‘-nte’를 제공하며 ‘-ante/-ente/-iente’의 유형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⁸⁾¹⁹⁾ 특히 1변화 동사에서 파생된 (23), (28), (29), (34), (35)와 어원 설명이 없는 (33)의 *interesante*까지 모두 ‘Del lat. -ans, -antis’과 같은 어원설명을 부여하지 않다는 점²⁰⁾을 볼 때 현대 스페인어의 동사원형을 여기로 하여 파생형용사를 설명하려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

RAE(2014)가 기술한 파생접미사 ‘-nte’의 내용(cf. 본 연구 2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의로 사용되는 것은 (22)-(37)중 문법화로 인해 전치사로 기능하는 (28)의 *durante*²¹⁾와 차용어로서 명사로만 기능하는 (35)의 *restaurante*(cf. Curell(2005: 102), Iannotti(2017: 79))가 있지만, 그 외는 모두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16) 이 동사에 대해 RAE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el lat. valēre ‘ser fuerte’, ‘estar sano’, ‘tener tal o cual valor’.

17) 검색일: 2022년 7월 22일.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RAE(2014)는 ‘-ante/-ente/-iente’의 유형을 사전상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26)의 ‘*dependiente, ta*’만 유일하게 여성형 명사굴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 이 접미사들을 소개하는 RAE(2014)의 방식은 각주 1)의 내용과 같다.

20) 웹사전의 특성상 (23), (25), (26)은 동사원형의 표제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파생형용사의 설명란에는 접미사의 특성과 관련된 어원을 소개하지 않는다.

21) Pato(2014, 86-89)는 RAE가 1832년부터 *durante*를 전치사로 간주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las preposiciones *durante* y *mediante*] presentaron a lo largo de la historia de la lengua un bajo porcentaje de uso como participio, adjetivo y sustantivo, y un patrón establecido de pérdida de rasgos flexivos, invariabilidad morfológica, fijación sintáctica y combinatoria. Además, la función como preposición la cumplían desde el siglo XIV (Sánchez Lancis(2001-2002); Castro Zapata(2010; 20120, Sánchez López(2013; en prensa).

으로 RAE(2014)는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 의거하여 집필된 교재인 이강국 외(2018)의 『Español I』에서는 ‘-nte’형 파생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가장 먼저 교재에 등장하는 사례는 명사의 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38)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동일한 것

- el cantante la cantante
- el estudiante la estudiante
- el pianista la pianista

이강국 외(2018, 28)

이러한 설명에 기초하면 동일 교재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대화문 (39a)에 등장하는 점원(dependiente)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강국 외(2018, 28)은 (38)과 동일 교재의 Vocabulario에서 *dependiente*를 (39b)와 같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39) a. Dependiente Buenas tardes, ¿Qué desea?

Marisol Quiero ver unos zapatos de tacón.

이강국 외(2018, 115)

b. dependiente adj. 의존하는; m.f. 점원

이강국 외(2018, 172)

이는 (40)처럼 ‘-nte’를 특별한 파생접미사로 다루지 않고 *inteligente*를 *amable*와 동일하게 ‘-e’로 끝나는 형용사로 제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0) 형용사의 위치와 성·수 일치

- Él es guapo.
- Ella es inteligente.
- Ellos son amables.
- Ellas son rubias.
- Ella es una chica guapa y simpática.
- Pedro y María son unos alumnos muy listos.

이강국 외(2018, 40)

- (41) 이강국 외(2018)에서 사용되는 ‘-nte’ 파생형의 사례²²⁾
- a.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 6개
¿Sois estudiantes?(p.29) / Restaurante La Princesa De 12:00 a 23:30(p. 69) / Dependiente: Buenas tardes, ¿Qué desea?(p.115) / Carlos: Soy Carlos Pérez, uno de sus clientes.(p.126) / Hay que proteger el medio ambiente.(p.137) / ¡Cómo canta ese cantante! (p.148)
 - b.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 7개
Ella es muy inteligente.(p.42) / Es un partido importante.(p.60) / Tenemos bastante tiempo para ver la fiesta de las Fallas.(p.79) / beber suficiente agua(p.106) / La sonrisa de las alas flamantes(p.109)²³⁾ / ¡Qué interesante!(p. 127) / ¡Qué película tan emocionante! / ¡Qué elegante soy yo!(p.148)
 - c.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 1개
reír bastante(p.106)

이강국 외(2018)는 (22)-(37)의 16개 단어 중 *caliente, diferente, durante, frecuente, picante, valiente*는 교재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41)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에 수록되지 않은 *cliente, flamante, emocionante, elegante*와 같은 4개의 단어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cliente*를 제외하고²⁴⁾ 모두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앞 (22)-(37)의 단어 중 동사어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함께 ‘스페인

- 22) 동일어휘가 동일 품사로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은 1개 사례로 간주하고 *bastante*처럼 형용사와 부사로 각각 기능하는 경우는 다른 사례로 간주한다.
- 23) (41b)의 *flamante*는 Joan Miró 작품명 ‘*La sonrisa de las alas flamantes*’을 소개하기 위해 등장하는 단어이다.
- 24) 실질적으로 명사로 사용되는 예들로 인해 도식화를 통하여 파생형태론을 설명하는 Gómez Torrego(2011, 58) 경우에서도 보듯이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다. *cantante*와 달리 경험자 주어를 갖는 동사(cf. Croft(1991, 214))에서 파생된 *amante*와 상태동사(static verb)에서 파생된 *existente*는 행위자의 해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SUFIJO	CATEGORÍA GRAMATICAL RESULTANTE	SIGNIFICADO	EJEMPLOS
-nte	adj. o s.	agente	<i>amante, existente</i>

본 연구는 논의의 목적과 지면관계를 고려하여 형태론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자 한다.

어 교육과정(2015)’에 수록된 것은 *cantar, estudiar, importar, interesar, valer* 5개이며 이강국 외(2018)은 이들 동사를 모두 교재에서 (4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42) a. Mamá canta para mí. (p.101)
b. ¿Qué estudian Uds.? (p.46)
c. ¿Te importa eso? (p.100)
d. ¿Te interesa esto? (p.100)
e. ¿Cuánto vale? (p.116)

따라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에 의거하여 (22)-(47) 중 *cantante, estudiante, importante, interesante, valiente*를 *cantar, estudiar, importar, interesar, valer* 5개를 어기동사로 하여 ‘-nte’의 특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어기동사가 수록되지 않아 교수·학습에서 가용어휘의 제약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원형만을 대표로 제시하며, 그 동사의 활용형과 분사 및 그 파생형은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는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조항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 조항은 아래에서 보듯이 기본어휘표에 수록된 동사들이 어기동사로 기능하여 다른 파생-‘-ble’, ‘-ción’, ‘-dad’ 등 -을 제외하더라도 ‘-nte’형 파생형만 76개를 더 기본어휘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amar-amante²⁵⁾, andar-andante, aprender-aprendiente, aprobar-aprobante, aprovechar-aprovechante, ayudar-ayudante, bailar-bailante, bajar-bajante, caer-cayente, cambiar-cambiante, celebrar-celebrante, comprar-comprante, comunicar-comunicante, conducir-conducente, consultar-consultante, contar-contante, contaminar-contaminante, correr-corriente, cortar-cortante, creer-creyente, decir-diciente/dicente, dejar-dejante, despedir-despediente, doler-doliente, dormir-durmiente, enseñar-enseñante, entrar-entrante, escribir-escribiente, escuchar-escuchante, estar-estante, faltar-faltante, fumar-fumante, girar-girante, haber-habiente, hablar-hablante, hacer-haciente, mandar-mandante, morir-muriente, mover-moviente, nacer-

25) 여기서 ‘*abrir-abriente*’와 같은 파생형의 수록은 *Diccionario histórico de la lengua española* (1960-1996)(<https://www.rae.es/tdhle/abriente>)에는 있지만 RAE(2014)에는 없다. 본 연구는 RAE(2014)에만 수록된 것을 기재하도록 한다.

naciente, navegar-navegante, ocupar-ocupante, oír-oyente, opinar-opinante,
 pagar-pagante, pasar-pasante, pasear-paseante, pensar-pensante, pesar-
 pesante, poder-pudiente, poner-ponente/poniente, practicar-practicante,
 preferir-preferente, preguntar-preguntante, preocupar-preocupante, prestar-
 prestante, recibir-recipiente, recomendar-recomendante, repetir-repitente,
 romper-rompiente, saber-sapiente, salir-saliente, seguir-siguiente, servir-
 sirviente/ta, significar-significante, subir-subiente, tener-teniente, terminar-
 terminante, tirar-tirante, tocar-tocante, trabajar-trabajante, tratar-tratante,
 venir-viniente, viajar-viajante, visitar-visitante, vivir-viviente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이 허용하는 파생조항으로 위와 같은 어기동사들
 로 초급학습자들의 어휘력 확장, 즉 가용어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
 마도 현행 기본어휘표에 수록된 세 단어 *canción*, *cantante*, *cantar*는 파생관계에
 있기는 동일 어족에 속하는 단어들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17)과 같은 문장은
 어휘적 응집성(cf. Halliday(1985), Bauer & Nation(1993), Carlisle(1995))을 높
 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17) ‘*El cantante canta una canción.*’과 같은 예를 통해 어기와
 어떠한 형태소가 결합하는지를 인지하면서 그 특성을 파악한다면 기본어휘
 표에 *contaminar*와 *contaminación*이 수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contaminar-*
*contaminante*에 대한 파생관계를 (17)을 통해 유추하도록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
 구심이 들지만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파생허용조항은 이러한 기대를 허
 용하게끔 한다. (17)의 문장은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을 기준으로 모두 가
 용어휘가 사용된 문장이지만, 이러한 문장의 학습만을 통해 초급 학습자에게
*contaminante*에 대한 어휘의 지식을 기대한다면, 적어도 어떠한 어형성과정을
 갖는지에 대한 수용적 지식을 기대할 수는 있을지라도,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
 어내는 생산적 지식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어형성 규칙과 파생형태론
 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파생형태론은 기존의 어휘를 활용하여 새로운 파
 생어를 만들어내는(cf. Matthews(21991, 61)) 생산적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
 지만, 초급수준의 학습에서는 형태를 만들면서 형용사와 명사로 사용하는 기
 능적 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cf. O’Gray *et al.*(1996))에서 구체적인 파생

형태론 교육은 초급 수준에서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Morin(2006)은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은 어휘력 확장을 위해 형태론적 정보를 활용하는 생산적능력을 보여주지만,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새로운 형태론적 지식을 수용적 어휘력 향상에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nte’ 형은 Serrano-Dolader(2019, 227-228)가 제안하는 아래의 학습활동과 같이 개별단어의 교수·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ACTIVIDAD 7.18. El sufijo -nte. cantante, tirante, calmante	
7.18.a).	A pesar del carácter polisémico de este sufijo, la asignación de significado por parte del aprendiz de ELE en estos deverbales no suele conllevar dificultades en los grupos semánticos más habituales: persona, instrumento, producto. Rara vez una misma palabra puede compartir más de uno de esos significados y, además, el contexto de aparición suele ser clarificador. Identifique uno de los significados citados en el sustantivo en -nte de cada una de estas frases y ofrezca otros ejemplos del mismo grupo. – <i>En el aeropuerto, se dio un gran recibimiento al cantante de moda.</i> → cantante (persona). Otros: dibujante, dependiente, presidente. – <i>Llevaba un ajustado pantalón que sujetaba con tirantes de flores.</i> → tirante (instrumento u objeto material). Otros: colgante, pendiente, aislante. – <i>Más de una alocada fan tuvo que tomarse algún que otro calmante</i> → calmante (producto). Otros: estimulante, anticongelante, adelgazante. • El grupo más numeroso es el de sustantivos de “persona”. Muchos de ellos son propios del lenguaje jurídico: <i>declarante, demandante, denunciante, depositante, otorgante.</i> • Muchas de estas formaciones pueden compartir usos sustantivos (<i>Estaba decaído y tuvo que tomarse un estimulante</i>) y adjetivos (<i>La nota que sacó en matemáticas fue muy estimulante para él</i>). • Algunas palabras no transparentan base de derivación. Aunque el aprendiz pueda reconocer en ellas el sufijo, no podrá ligar su adquisición a otras palabras con las que asociarlas: <i>recipiente, detergente, disidente.</i>
7.18.b).	Uno de los sufijos que compiten con -nte para la formación de nombres de persona es -dor (vease la actividad 7.15.). Ya vimos que, en español, no pueden formarse derivados del tipo *<i>moridor</i> o *<i>desaparecedor</i> en la medida en que los verbos de los que derivan no denotan “acción” (actividad 5.8.b). Observe estos ejemplos: <i>simpatizante, creyente, ignorante, oyente, superviviente, cesante.</i> ¿Opera la restricción señalada en estos casos? → Los verbos de los que proceden estas formaciones no denotan acción y, sin embargo, si pueden derivarse nombres en -nte; según esto, la restricción señalada parece ser mucho más débil para formar derivados en -nte que en -dor. Esto ayudará al aprendiz de ELE a comprender el contrastes del tipo: *<i>simpatizador</i> – <i>simpatizante</i>, *<i>ignorador</i> – <i>ignorante</i>.

■ Algunas particularidades en el español de América

- Aunque en español europeo hay algún raro ejemplo de derivado denominal (*comedia* > *comediante*), existen algunos casos mas en zonas hispanoamericanas: *promesa* > *promesante*, *romería* > *romeriente*.
- En comparación con otros sufijos, no son muchos los derivados representativos de zonas hispanoamericanas: *acudiente* (“tutor de estudiantes”), *paseante* (“transeúnte”), (*un*) *ambulante* (“el que vende mercancías por la calle”).

Serrano-Dolader(2019, 227-228)가 제안하는 학습활동에서도 보듯이 ‘-nte’형은 지역별로 사용의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RAE(2014)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conferenciante*와 *conferencista*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43) a. *conferencista*
De conferencia e -ista.
1. m. y f. Am. *conferenciante*.
- b. *conferenciante*
De conferenciar y -nte.
1. m. y f. Persona que diserta en público sobre algún punto doctrinal.

이에 대해 RAE-ASALE(2009, 6.9ñ, 6.10.d)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43b)보다 (43a)의 사용을 더 선호하며 유럽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파생에 참여하는 어기 차이로 보고 있다. 원어민들도 지역간에 파생형에 대한 직관이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이 파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급 수준의 교수·학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nte’형이 동사파생형용사라는 수용적 정보를 활용하여 (43b)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하면서 적어도 *conferencista*에 대해 ‘*conferenciar y -ista’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형태론과 관련된 초급 수준의 교수·학습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IV. 맺는말

초급 수준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파생형태론에 입각한 어형성 규칙의 학습을 통하여 조어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학습과정에서 동일 어근

이나 어간을 갖는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접하면서 해당 맥락에서 형태론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어를 탈맥락적 상황에서 마치 암기하듯이 외우는 학습은 장기 기억을 기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의미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도 힘들다. 특히 ‘-nte’ 파생형의 경우 다수가 명사와 형용사로 기능하는 어휘이므로 다른 명사화 접미사나 형용사화 접미사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문법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 기능을 갖는 요소로 파생이 되는지를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파생형태론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보여주는 생산적인 어휘지식과 관련되므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파생허용조항은 생산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고급 수준의 조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페인어 교육과정(2015)’의 기본어휘표는 초급 수준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표이므로 수용적 어휘지식이 필요한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해 현재의 파생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6].
- 이강국, 유은정, Jiménez, S.L.A., 안주희(2018), 『Español I』, 전라남도 교육청.
- Alcoba, S.(1999), “La flexión verbal”,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pp. 4915-4991.
- Bauer, L. & P. Nation(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Vol. 6, pp. 253-279.
- Cano Cambrero, M.A.(2013), *Las derivaciones en -nte y -dor: Estructura argumental y complejidad sintáctica en una morfología neoconstruccionista*,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Carlisle, J.(1995), “Morphological awareness and early reading achievement”, in L.B. Feldman(ed.), *Morphological Aspects of Language Processing Hillsdale*, NJ: Erlbaum, pp. 189-209.

- Castro Zapata, I.M.(2010), “El camino hacia la preposición. Los procesos de gramaticalización de durante y mediante”, *Interlingüística*, Vol. 20, pp. 1-11.
- (2012), “Del participio a la preposición: procesos de gramaticalización de durante y mediante”, in E. Montero Cartelle & C. Manzano Rovira(eds.), *Actas del 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Santiago de Compostela: Meubook, Vol. I, pp. 721-733.
- Consejo de Europa(2002), *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s: aprendizaje, enseñanza, evaluación*, Madrid: MECD-Instituto Cervantes-Grupo Anaya.
- Croft, W.A.(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rell, C.(2005), *Presencia del francés en el español peninsular contemporáneo*,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de La Laguna.
- Felíu Arquiola, E.(2009), “Palabras con estructura interna”, in E. De Miguel(ed.), *Panorama de la lexicología*, Barcelona: Ariel, pp. 51-82.
- Gómez Torrego, L.(1998), *Gramática Didáctica del Español*(4ª ed.), Madrid: SM.
- (2011), *Análisis morfológico. Teoría y práctica*, Madrid: SM.
- Halliday, M.A.K.(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Iannotti, M.(2017), *La información etimológica en los diccionarios generales de lengua del español y del italiano*, Ph.D. Dissertation, UNED.
- Instituto Cervantes(2006),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 niveles de referencia para el español*. 3 tomos, Madrid: Editorial Biblioteca Nueva, S.L.
- Marcos Miguel, N.(2013), *Analyzing instruction and learning of derivational morphology in the Spanish foreign language classroo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A.
- Matthews, P. H.(1991), *Morphology*(2nd ed.),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no García, C., Hernández Alcaide, C., Kondo Pérez, C.(2007), *Gramática. Nivel elemental A1-A2*, Madrid: ANAYA.
- Morin, R.(2006), “Building depth of Spanish L2 vocabulary by building and using word families”. *Hispania*, 89(1), 170-182.
- Nation,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Gray, W., Dobrovolsky, M., & Katamba, F.(1996), *Contemporary Linguistics*,

- London: Longman.
- Pato, E.(2014), “Sobre la gramaticalización (im)posible de pendiente como preposición”, *Analecta Malacitana (AnMal electrónica)*, Vol. 36, pp. 85-98.
- Pena, J.(1999), “Partes de la morfología. Las unidades del análisis morfológico”,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4305-4366.
-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noun in derivational series”, in Cifuentes Honrubia, J.L. & Rodríguez Rosique, S.(eds.), *Spanish Word Formation and Lexical Cre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 217-231.
- Real Academia Española(1726-1739), *Diccionario de autoridades*(<https://apps2.rae.es/DA.html>).
- (1960-1996) *Diccionario histórico de la lengua española* (<https://www.rae.es/tdhle>)
- (201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www.rae.es)
- Real Academia Española &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Robles García, P., & Sánchez Gutiérrez, C.(2016), “La morfología derivativa en los manuales de español elemental estadounidenses: Un estudio exploratorio”, *Revista Electrónica de Lingüística Aplicada*, Vol. 15, 70-86.
- Sánchez Lancis, C.(2001-2002), “La gramaticalización de los participios latinos de presente durante y mediante a través de las gramáticas y los diccionarios del español”, *Anuari de Filologia*, Vol. 11-12, pp. 95-109.
- Sánchez López, C.(en prensa), “Preposiciones, conjunciones y adverbios derivados de participios”, in C. Company Company(ed.), *Sintaxis histórica de la lengua español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2055-2180.
- Santiago Lacuesta, R. & Bustos Gisbert, E.(1999), “La derivación nominal”, in I. Bosque y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4505-4594.
- Serrano-Dolader, D.(1999), “La derivación verbal y la parasíntesis”,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4683-4755.
- (2016), “Viejas y nuevas aproximaciones al concepto de parasíntesis”, in

- C. Buenafuentes de la Mata, G. Clavería & I. Pujol, *Cuestiones de morfología léxica*, Madrid/Frankfurt: Iberoamericana Vervuert, pp. 9-34.
- _____(2019), *Formación de palabras y enseñanza del español LE/L2*. Londres/ Nueva York: Routledge.
- Serrano-Dolader, D., Zorraquino, M., & Ávaro, J.F.V.(2009), *Morfología y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E/LE)* [*Morphology and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SSL)*]. Zaragoza, Spain: Prensas Universitarias de Zaragoza.
-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Proyecto de Innovación Plataforma gramatical de enseñanz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https://www.ucm.es/plataformae/>).
- Varela, S.(2005), *Morfología léxica: la formación de palabras*, Madrid: Gredos.

각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jykpato@bufs.ac.kr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3일

Spanish Word Formation Rules and the Suffix ‘-nte’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Spanish

Jaeyong Kwa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eyong Kwak(2022), “Spanish Word Formation Rules and the Suffix ‘-nte’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Spanis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2), 1-38.

Abstract The basic vocabulary list of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Spanish (2015) has included a specific condition related to the derivational morphology: “In the case of verbs, only the infinitive is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form, and all its inflected forms like gerund and participle and its derived forms are regarded as the basic vocabulary.” According to this condition, five words like *cantante*, *estudiante*, *importante*, *interesante*, *valiente*, derived with suffix ‘-nte’, need not to be included in the basic vocabulary list because their corresponding verbs (*cantar*, *estudiar*, *importar*, *interesar*, *valer*) appear in the same vocabulary list. Furthermore, this condition permits to create more than 76 new words out of verbs that are already listed in the basic vocabulary list, without considering other kinds of derivations (using ‘-ble’, ‘-dad’, ‘-dor/a’, ‘-tivo/va’) that can produce a large amount of vocabulary. An explicit teaching of derivational morphology for beginning-level learners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 suffix ‘-nte’ is, from the diachronical point of view, of Latin origin and even synchronically this can be an obstacle for them in knowing the meaning of this suffix and to use it properly. From this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hat a modification of the content related to the lexical derivation is required on the basic vocabulary list. We conclude that if the teaching of derivational morphology about ‘-nte’ in the beginning-level is needed, it is recommended to adopt a synchronic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lexical base, which is enough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the receptive knowledge of the suffix ‘-nte’.

Key words suffix ‘-nte’, synchronic approach, derivational morphology, basic vocabulary list,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Spanish, beginning-level learners